



사회적 대화 Brief

The Social Dialogue

2026년 - 8호 | 통권 92호 |

노사정, 18년 만에 해외 공동방문 산업전환과 사회적 대화 해법 모색

- 2008년 아일랜드 방문 후 18년 만에 노사정 공동 해외 시찰 -
- 독일 노사정을 차례로 만나 「노동 4.0」등 산업전환 해법 모색 -



▲ 왼쪽부터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케르스틴 그리제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차관, 손경식 한국 경총 회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사정이 참여한 노사정 대표단이 독일을 찾아 인공지능 등 산업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모델과 노사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사노위 김지형 위원장과 노사정 대표단*은 6월 11일부터 12일사이,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 독일노총(DGB), 폭스바겐(Volkswagen) 본사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독일의 「산업-노

동 4.0」등 산업전환 대응 사례를 심도 있게 청취했다.

* 노사정 대표단: 한국노총위원장, 한국경총회장, 노동부장관,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이하 기노위) 국회의원 등

이번 노사정 대표단의 독일 방문은 「산업-노동 4.0」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 사례를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우리나라도 역시 직면하고 있는 산업전환 시대에 미래지향적 노



▲ 한국 노사정 대표단은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를 방문해 독일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형성 경험을 청취했다.

사정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특히 경사노위가 노사정 대표와 함께 해외 선형 사례를 공동 방문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아일랜드를 찾은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대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독일에 도착한 노사정 대표단은 우선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를 방문해 산업·기술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형성 경험을 청취했다.

노사정 대표단을 맞은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 케르스틴 그리제(Kerstin Giese) 차관은 “독일의 ‘산업 4.0’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노동 4.0’은 기술혁신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직업 훈련, 평생학습, 노동시장 안전망 강화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리제 차관은 “‘노동 4.0’은 노·사·정은 물론 시민 사회도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고, 도출된 결과를 정책 수단으로 연결·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노동 이슈를 사회적 대화 틀 안에서 논의한 점 등 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리제 차관은 “최근 독일은 AI 전환의 시대에 직면하여 노동시장 문제에 사전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모든 일자리가 AI와 관련하여 변화할 것인 전망 속에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컨설팅



▲ 한국 노사정 대표단은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를 방문해 독일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형성 경험을 청취했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리제 차관은 “질문을 던지고 많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며 숙의민주주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산업전환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큰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라며, “독일의 경험은 기술혁신과 산업 경쟁력 제고, 노동자 보호가 상충되는 목표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함께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후 위기와 산업 구조 개편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이 양국 노총의 공통된 소명”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이 지혜를 모으고, 국경을 넘는 공고한 연대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는 각자의 이익만



▲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을 강조하며 서로를 공격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동반자적 협력 관계와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한국노총도 과거의 강력한 투쟁 관점을 탈피하여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사정의 상호 신뢰와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했다”며, “한국 역시 글로벌 경쟁과 AI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만큼, 노사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업경쟁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함께 지켜나가는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AI 도입과 생산방식 혁신, 성과 공유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업전환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표단은 이어 중국시장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스바겐 본사를 방문해 현장 단위 사회적 대화 운영체계와 노사관계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종업원평의회를 통한 노동자 참여 및 노사협력 사례도 청취했다.

특히 전기차 전환과 디지털화 과정에서 기업 애로사항과 경쟁력 확보, 고용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사 간 협력 사례, 직무 재설계와 재교육 체계,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



▲ 왼쪽부터 김형동 의원,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야스민 파히미 독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이학영 의원, 김주영 의원, 김위상 의원.



▲ 노사정 대표단은 독일경총(BDA)을 방문해 산업전환, 기후중립, 인공지능(AI) 도입 등 최근 경영계의 주요현안과 대응 전략을 청취했다.

여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노사정 대표단은 독일노총(DGB)과 독일경총(BDA)도 방문해 산업전환, 기후중립, 인공지능(AI) 도입 등 최근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요 현안과 대응 전략을 청취하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사의 참여의 필요성을 비롯한 사회적 대화에 대해 논의했다.



▲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클레어 뚜리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위원장(좌측 두 번째)과 간담을 갖고, 프랑스의 공론화 제도 운영 현황과 시민참여 방식,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지형 위원장 프랑스 CESE와 시민 공론화 모델 논의, MOU체결 제안

한편, 경사노위 김지형 위원장은 독일 방문에 앞서 6월 8일(월) 프랑스 파리에서 클레어 뚜리(Claire THOURY)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CESE) 위원장과 간담을 갖고, 프랑스의 공론화 제도 운영 현황과 시민참여 방식,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김 위원장의 CESE 방문은 사회적 대화 2.0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 CESE가 수행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공론화 제도의 운영 경험을 청취하고, 이를 한국형 사회적 대화 및 공론화 제도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CESE는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공론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시민협의회(Citizens' Convention) 운영을 통해 안락사,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숙의·공론화하고,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김지형 위원장은 “한국은 지금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전환 속에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회적 갈등이 복잡·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론화는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정책의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한국의

사회적 대화 2.0'에 맞는 국민참여형 공론화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프랑스의 시민 공론화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레어 뚜리 CESE 위원장은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의 공론화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시민 참여 확대와 숙의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 형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양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분야의 경험을 공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에서 두 위원장은 △시민 참여형 공론화 운영 사례, △산업전환·기후전환 대응 전략, △‘청년·미래세대 참여 확대’ 방안 등 양국의 고용노동 현안과 해법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를 나눴다.

김지형 위원장은 간담을 마친 후 한국과 프랑스 사회적 대화기구 간 지속적인 협력 및 공조를 위해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했고, 클레어 뚜리 CESE 위원장도 양해각서 체결에 적극 공감하며 화답했다.

양 기관 위원장들은 빠른 시일 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 사회적 대화 제도 운영 경험 공유 ▲ 시민참여 및 숙의민주주의 사례 교류 ▲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응 ▲ 청년세대 참여 확대 ▲ 사회적 갈등 완화와 사회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사노위는 이번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사례 방문을 계기로 향후 해외 주요 사회적 대화 기구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 사회에 적합한 사회적 대화 및 공론화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slc**

담당 대외협력실 손옥이 전문위원